2차 공공기관 이전 임박… 경북도, 핵심 기관 유치 총력전

농협중앙회·마사회 등 유치 경쟁
지역 산업 연계성 앞세워 승부수
이철우 지사, 국토부에 직접 건의
양 부지사도 기관 방문 설득 총력
정주 여건 개선·정치권 공조 강화


지난 7월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미나에서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경북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북도가 지역 주력산업과 시너지를 낼 핵심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도 지휘부가 중앙부처와 이전 대상 기관을 직접 찾는 등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중점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가유산진흥원 등이다.

기관별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농협중앙회는 전남광주, 전북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전북 남원, 경기 이천, 제주, 경남 등 5개 광역·기초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인접한 대구시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 기조와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핵심 논리로 내세워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정주 여건 지원책을 제시하며 기관 마음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도 지휘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요 기관의 경북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지난 6월과 10월에는 유치 추진상황보고회와 결의대회를 주재하며 기관별 대응 전략과 이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행정·경제부지사도 현장 행보에 힘을 보탰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과 정주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난 8월 한국마사회를 찾아 '렛츠런파크 영천' 중심의 말산업 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했으며, 도내 7개 시·군과 말산업 육성 공동협약도 체결했다.

정치권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지난 7~8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치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대한민국 성평등·가족정책 허브 경북 조성' 세미나를 개최해 관련 기관 유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전통·첨단산업 기반과 우수한 교통·물류망을 갖춘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핵심 기관을 반드시 유치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국경 넘어 학생·교원 교육교류 활성화

경기도교육청, 재외한국학교와 협약
한국어 교육·교류 협력체계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회장 이상철)와 재외국민 교육 및 한국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약 1만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재외국민 자녀의 한국어·역사·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경기도 학교와 재외한국학교 간 학생·교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재외한국학교 1대1 연계 교류 ▲한국어·역사·정체성 교육 협력 ▲교원 교류 및 역량 강화 ▲한국어 확산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연수, 교육 콘텐츠 공유 등을 지원하며, 협약 기간은 3년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상철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장과 교육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대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교류 수요를 파악해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왔다.

현재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이 재외한국학교와 교류를 추진 중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일본 건국한국학교, 안성교육지원청은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했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포항시, 4800억 투입해 특급호텔 조성

경북도·한화 등과 투자협약 체결

포항시가 북구 환호동에 총사업비 4800억원을 들여 385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을 추진한다. 착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포항시는 20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포항하나원㈜과 '환호지구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업부지는 환호동 일원 약 4만9000㎡다. 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민간자본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주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공모 선정이 민간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대해수욕장 등 관광지가 있지만 고급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의 숙박과 야간 소비가 경주 등 인근 지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환호공원과 스페이스워크, 영일만 해안 경관, 포스코 야경 등 관광자원에 숙박·휴양 기능을 더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소비가 인근 상권과 관광지로 이어지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와 연계해 국제회의와 산업전시회 방문객의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분야 비즈니스 수요에 관광·휴양 기능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건설 일자리 창출을, 시설 운영 단계에서는 식음료·유통·시설관리와 호텔·관광서비스 분야의 고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순창군, 노인일자리 3380개로 노후 활력

자원순환 특화사업으로 참여 확대

전북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대외적인 성과와 현장 호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순항하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총 3380개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역 어르신들이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규칙적인 일상 유지와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성과 최신 환경 트렌드를 접목한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참여 폭을 넓혔다. 기존의 '시니어자원순환단' 운영에 더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다회용기 세척 공동체사업단 '청춘드림워싱' 등이 대표적이다.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자원 순환 가치를 확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의 만족도 역시 높다.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니 하루하루에 활력이 생긴다"며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같은 내실 있는 운영은 대외적인 기관 평가에서도 빛을 발했다. 순창군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순창(전북)=정봉철 기자 jbc6744@

전주시, 비빔밥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

2030년 등재 목표로 학술대회 개최

전주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이 세계인의 음식문화를 넘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가 오는 2030년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주비빔밥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2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비빔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내학술대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비빔밥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향후 등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형문화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무형유산과 음식문화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빔밥의 역사성과 공동체적 전승 가치를 공유했다. 특히 학술대회에서는 비빔밥이 단순한 한 끼 음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 세대 간 전승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비빔밥 전승 사례를 살펴보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록화, 국내외 홍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주(전북)=김근호 기자 kmo2455@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겨울철 화재·안전사고 예방 총력

울산시는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31개 분야 9617건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와 소방본부, 5개 구·군은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화재 취약 시설과 노후 시설, 연말연시 행사장의 위험 요소를 살핀다. 영화관은 소방·전기설비와 비상구·피난통로, 전통시장은 전기·가스·소방설비와 화기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요양·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서는 대피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한 피난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울산=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인천시
글로벌 반도체 기술협력 강화

인천시는 20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인하대학교, 인천반도체포럼 주관으로 '2026 인천 반도체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학·연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첨단 패키징 기술 발전 방향과 국제 공동연구 가능성을 논의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박경록 연구소장이 인천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고 AI 반도체 패키징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진 세미나에는 일본 도호쿠대, 삼성전자, 일본 DNP, 미국 시스코 전문가가 참여해 3D 집적과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 소재·열관리 기술을 공유했다.

/인천=이속영 기자 sy1321@

한국마사회 부산경남
AI 말 영상 콘텐츠 14편 제작

한국마사회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지원한 '부산AI영화학교 2기 AI 콘텐츠 제작 워크숍' 교육생 20명이 말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 콘텐츠 14편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영화의전당 비프힐 편집교육실에서 총 8회에 걸쳐 열렸다. 20대 학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생들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영상 기획과 제작, 편집 과정을 실습했다. 이를 통해 일반 영상 9편, 광고 3편, 뮤직비디오 2편 등 총 14편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취약가구 70세대 난방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가 동경주 지역 에너지 취약가구 70세대에 가구당 32만 원 상당의 난방유와 연탄을 지원한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해송을 통해 진행한다. 지원 물품은 11월 말까지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권원택 월성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문무대왕면 와읍리의 에너지 취약 가정을 찾아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권원택 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